

부산지역 4월혁명과 민주문학*

이 순 욱**

| 목 차 |

- I. 들머리
- II. 부산의 매체 환경과 혁명문학의 지역 대표성
- III. 4월혁명시와 민주주의적 동원
- IV. 4월혁명과 청소년문학의 역동
- V. 마무리

| 국문초록 |

4월혁명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재편과 극적 전환을 마련해 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문학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4월혁명문학은 이승만 정권과 비민주적인 가치 체계에 대한 단죄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식과 정치적 실천을 전면에 표출한 ‘힘의 선언’이자 피의 선언이었다. 혁명 당시 신문매체에서 지배적으로 생산된 시와 공론, 비평, 어린이문학, 청소년문학, 수기, 항쟁기 들은 그러한 정치의식의 적극적인 표명이었다.

부산은 4월혁명시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 가장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주최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학술대회 때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enfb@pusan.ac.kr

폭넓게 전개된 지역으로, 마산과 더불어 혁명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4월혁명의 진원지이자 거점이었다. 이 시기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문화지형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 청년학생운동 조직의 결성과 활동, 국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언론 방송매체의 공론장 형성과 적극적인 여론 주도 들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4월혁명문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부산, 4월혁명, 민주문학, 혁명문학, 문학의 정치성

I. 들머리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이승만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와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단정 수립 이후 단절되다시피 한 문학의 정치성을 강하게 구현해 나가는 시기다. 4월혁명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재편과 극적 전환을 마련해 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문학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의 상흔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문학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정치의식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문단 혁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학사회는 국가권력이 억압했던 가치의 귀환,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민주문학의 지향을 전면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4월혁명문학은 이승만 정권과 비민주적인 가치 체계에 대한 단죄와 국가권력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식과 정치적 실천을 전면에 표출한 ‘힘의 선언’이자 피의 선언이었다. 혁명 당시 신문매체에서 폭넓게 생산된 시와 공론, 비평, 수기와 증언, 투쟁기, 비평은 그러한 정치의식의 적극적인 표명이었다. 이 시기 신문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혁명의 경과와 지향을 담아낸 시는 곧바로 단행본 혁

명기념시집으로 갈무리되었을 만큼 가장 폭넓게 향유된 갈래 가운데 하나였다. 시뿐만 아니라 소설, 수기, 논픽션, 항쟁기(투쟁기), 어린이문학, 청소년문학, 방송극, 추모집, 항쟁사, 화보집, 장편기록영화의 생산과 향유는 피의 함성으로 물든 혁명 열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4월혁명의 지역적 경험은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운동의 기반과 정서, 부정선거의 지역적 양상, 항쟁의 전개 양상과 주도세력의 역할이 다르다. 이승만 정권의 폭압통치와 선거 부정에 대한 시민과 학생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투쟁은 전면적인 양상을 띠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른바 거리의 정치가 낫설지 않은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 부산은 학원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학생들의 정치적 실천이 폭넓게 전개된 지역이다. 대구 2·28민주항쟁에 이어 3월 초부터 학원의 정치도구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가장 역동적으로 전개된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부산은 마산과 더불어 혁명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4월혁명의 진원지이자 중심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 4월혁명문학의 매체 환경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혁명시의 생산과 향유, 청소년문학의 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¹⁾ 부산의 4월혁명문학은 대체로 마산의거에서 촉발된 4월혁명의 일반적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혁명문학의 성과가 다른 지

1) 글쓴이는 그동안 4월혁명문학과 관련된 몇몇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영주어문』 12, 2006, 267~297쪽 ;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45, 2007, 365~407쪽 ; 『4월혁명과 북한 아동문학—『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6, 2007, 373~398쪽 ; 『4월혁명문학과 부산』, 『항도부산』 26, 2010, 1~42쪽 ; 『4월혁명과 북한문학—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 2011, 133~166쪽.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의 전장』(소명출판, 2014) 제2부 ‘4월혁명과 남북한문학’에서 부분적으로 갈무리하였다. 이 글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학술대회(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2019.10.31)에서 발표한 글로, 부산지역 민주운동사에서 4월혁명문학의 성격을 조망하는 학술대회의 취지에 따라 기존 논의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역에 견주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뚜렷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문학과 청소년문학의 층위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4월혁명문학의 지역적 경험에 주목하는 것은 공시적·통시적 흐름으로 수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이란 측면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적지 않다. 이 시기 다양한 갈래에 걸쳐 4월혁명을 형상화한 민주문학을 통해 부산지역 사회운동을 재구성하는 뜻깊은 시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I. 부산의 매체 환경과 혁명문학의 지역 대표성

매체는 문학의 창작과 향유를 증폭시키는 실질적인 토대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이다. 당시 부산의 지역지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보』, 『민주신보』, 『자유민보』는 4월혁명의 이념과 의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공론장(public spheres)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1960년 혁명의 시작단계부터 12월 말까지 4월혁명시는 『마산일보』 16편, 『조선일보』 20편, 『동아일보』 24편 정도를 헤아린다. 이에 반해 『국제신보』와 『부산일보』, 『민주신보』, 『자유민보』에 70여 편의 시가 발표되었다는 점은 4월혁명문학의 부산지역 대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부산에서 4월혁명문학이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부산의 문화론적 환경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의 도시 집결과 교육기회의 확대, 대중매체의 영향력 확산이 청년계층과 학생계층의 문화의식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기 부산은 피란수도로서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물질 기반이 집중됨으로써 문화지형의 재편과 변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의 환도 이후 일시적인 공동화 현

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문화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이 부산 지역민들의 문화수준과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동인지 문학운동²⁾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학생들의 의식적 성장과 사회 활동이 두드러졌다. 1950년 후반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의 주체는 주로 학생이었다. 이와 더불어 민족문화협회³⁾의 결성과 암장(岩漿) 그룹⁴⁾ 활동이 청년학생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과 지식인 계층이 주도한 4월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부산지역 희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던 점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론직필의 자유언론을 고수했던 부산의 미디어 환경이다. 부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항쟁을 증폭시켰던 데는 『국제신보』와 『부산일보』, MBC부산문화방송의 역할이 컸다. 1958년에서 1961년까지 국제신보사회부장으로 일했던 3년의 시기를 “4·19 정국”⁵⁾으로 규정하는 이광우의 회고는 당시 부산지역 언론계의 동향을 잘 보여준다.

-
- 2)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화과 동인지』, 『영주어문』 19, 2010, 121~156쪽.
 - 3) 이종륜이 주도하고 훗날 김정환과 이주홍이 참여한 민족문화협회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김선미, 『이종륜의 민족운동과 정치사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2~134쪽.
 - 4) 당시 부산고를 비롯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이념서클인 ‘일꾼회’를 개명한 ‘암장’은 졸업한 후에도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고 시국강연회나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중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편, 『암장』, 지리산, 1992, 48~100쪽. 암장 성원들과 부산의 진보적 청년들의 결합은 4월혁명 이후에 이루어진다.
 - 5) 이광우, 『회고와 추억』, 자가본, 2003, 136쪽. 당시 논설위원으로 일하면서 1958년 11월부터 이일구라는 필명으로 『백만 독자의 정치학』을 연재했던 이종륜은 세 차례(1958.11.30~12.2)에 걸쳐 ‘민족혁명론’을 개진하는 등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앞자리에 섰다.

60년 들어 3.15 의거 이전에도 부산의 젊은이들이 여러 차례 산발적인 거리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영도다리가 들려 있는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내리면 갑자기 스크림을 짜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달려간다거나, 동아극장 오후 상영이 끝나면 영화보고 나오는 관객 속에 섞여 있다가 기습적인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시위대는 대체로 고등학생들이거나 야당 청년 당원들이었다. 기습 시위의 주동자는 미리 신문사로 전화를 해서 거사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나는 기사를 미리 과견해 두었다가 시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생생한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비록 작은 기사지만 국제신보의 특종이 이어졌고, 시민들의 머리 속에 ‘국제신보는 민주주의를 알리는 신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갔다.⁶⁾

당시 야당지로 분류되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발행부수가 여당지를 압도하던 가운데, 『국제신보』는 여론의 성장을 복돋우며 국가를 여론의 범정으로 끌고 나왔다. 1958년 11월 민족혁명론의 연재와 이병주의 주필 영입에서 보듯이, 『국제신보』는 기존의 국가기구의 권력 행사방식을 단순히 수정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장치들을 창출하는 식의 변화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비밀스럽고 독단적인 국가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토론하고 독서하는 잠재적인 공개장⁷⁾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던 자유당 정권의 위험성을 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알리는 신문”으로 평가받았다. 전국 일간지 가운데 『국제신보』에 게재된 4월혁명시가가 가장 많다는 점 또한 이와 관련 있다. MBC부산문화방송의 자매회사인 『부산일보』 또한 다분히 야당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방송매체 또한 신문매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말기의 민의를 대변하

6) 이광우, 앞의 책, 2003, 139쪽.

7) J.키인·주동황 외 옮김, 『언론과 민주주의』, 나남출판, 1995, 48쪽.

면서 마산의거를 맞아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MBC부산문화방송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마산과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4월혁명을 고무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1960년 3·15선거일이다.

내가 경영하는 부산문화방송의 방송 마이크를 신문사 사장실로 옮겼다. 신문과 방송의 취재망을 하나로 묶어 그 능력을 올리는 한편 신속하고 소상한 상황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선거는 정·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기왕에 선거 부정을 보아온 터여서 시민들의 관심이 날카롭게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에 응해주는 의미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가 절실했던 것이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산발적인 응성거림이 있는 듯 하더니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켈기가 마산에서 거센 물결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자 마산에 특파돼 있는 기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개표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려 파출소를 습격해서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자 경찰관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나의 부산일보 사장실에는 문화방송의 마이크가 설치되고 직통전화는 물론 다른 모든 전화선을 집결시켜 나의 진두지휘하의 비상체제로 옮겨져 있었다. 이 보도가 문화방송의 제일성으로 전파를 타자 소상한 상황을 알리는 시민들이 방송국으로 몰려들어 아우성이었다. 방송원은 밀폐된 부산일보 사장실이라는 걸 한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문화방송의 제일보가 나가 채 1분도 못돼서 일본의 NHK가 우리 방송을 따서 방송하는 것을 듣고 나는 쾌감을 느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문화방송국에는 관계요로서의 빗발치는 전화벨이 울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무위로 끝났다. 나중 경남경찰국장이 방송국을 거쳐 나에게로 찾아와 그러한 방송의 중지를 호소했으나 그때 이미 방송이 끝날 무렵이었고 나는 마이동풍격으로

흘려버렸다. 나는 오랜 정치보복을 받아온 숙원을 이 국가비상 시에
통쾌한 언론으로 푼 것이 된 셈이다.⁸⁾

방송매체의 속보성과 동시성은 신문보다도 훨씬 즉각적으로 청취자
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MBC부산문화방송은 경찰당국으
로부터 보도를 중지하라는 통고를 받는 동시에 사육에 상주하는 형사수
가 증가되면서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다.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산과
부산의 상황을 지체 없이 보도함으로써 청취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
다.¹⁰⁾ 당시 KBS가 4월 19일의 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22일부터
는 <계엄사령부의 시간>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계엄사령부의 요망사
항을 방송했던 상황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¹¹⁾ 이처럼 4월혁명 시기
이승만 정권에 적대적이었던 부산지역의 신문 방송매체는 여론을 이끌
면서 혁명을 추동하였다. 청취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정
부당국의 감시와 협박이 잇따랐으나, 시민을 어둠 속에 가둬 놓은 국가
로부터 해방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
- 8) 김지태, 『4·19의 불꽃』, 『나의 이력서』, 한국능률협회, 1976, 196~197쪽과 자명김
지태전기간행위원회 엮음, 『사일구혁명을 점화한 민주 언론의 영웅들』, 『문항라 저
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 석필, 2003, 382~389쪽을 참고할 것.
- 9) 전용덕, 『이 사람이 목에 힘을 빼게』, 중앙M&B, 2002, 73~91쪽.
- 10) 김영출, 『MBC부산문화방송의 1년』, 『방송』 송년호, 대한방송사업협회, 1960. 12, 20
~21쪽.
- 11) KBS는 4월 23일에 이르러서야 계엄사령부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4월 19일 당시
의 방송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성을 잃은 행위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형제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6·25남침의 민족적인 비극을 겪어온 동포들
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행동으로 사회질서가 어지러
워지고 국가와 동족의 재산이 부서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까지 방송
을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학생과 시민
들의 데모를 가라앉히기 위해 오늘 오후 다섯 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학생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데모에 참가하지 못
하도록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특집 4월 민주혁명과 방송』, 『방송』 여름
호, 대한방송사업협회, 1960, 8~13쪽.

것이다.

燦發한 憤怒가
 怒濤와 같이 쏟아져 나온 거리
 오— 獨裁는 물러갔다.
 썩은 등걸에 피에 젖은 새 얼굴
 民主主義는 되살아났다.

잘 싸웠다. 이겼다.
 學生이여! 市民이여! 新聞이여!
 오! 腐敗에 뿌리박은 獨裁는 물러났다.

또 하나의 解放을 謳歌하며 도는 輪轉機는
 鎮魂歌란다.

— 김태홍, 「獨裁는 물러갔다」 가운데서¹²⁾

부산일보사 논설위원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폭정에 대해 필주(筆誅)를 가하던 김태홍의 시를 통해 언론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읽을 수 있다. 혁명을 추동하는 무기로 기능했던 “윤전기”는 이승만의 하야 이후, 추도정국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해방을 구가하며 도는 진혼가”로서 끊임없이 돌아갈 것이다.¹³⁾ 4월혁명시기 언론의 공론장 형성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다.

12) 『부산일보』, 1960. 4. 27. 1면.

13) 물론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언론 매체가 이러한 진혼의 문맥을 전경화하면서 ‘피의 대가’와 ‘피의 공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 천상병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계산하는 피는 “글자로 나타난 피라는 활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흘렸던가 하는 양적인 통계적인 뜻의 피”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 민족의 어느 누구도 이 피에 ‘객관적’일 수 없으며, 피의 양을 계산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이러한 태도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천상병, 『국제신보』, 1960.5.11. 4면, ‘4월혁명의 피는 씻을 수 없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혁명시를 수록한 때가 “피의 화요일”을 지난 4월 23일인 데 반해,¹⁴⁾ 『국제신보』가 마산의거를 노래한 최초의 시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마산사건에 희생된 소년들의 형전에』를 수록한 것은 3월 28일이다. 이는 부산지역 미디어 환경이 혁명문학의 생산과 향유를 이끄는 발생론적 조건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4월혁명시기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문화지형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 청년학생운동 조직의 결성과 활동, 국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언론 방송매체의 공론장 형성과 적극적인 여론 주도 들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4월혁명문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Ⅲ. 4월혁명시와 민주주의적 동원

4월혁명 당시 폭넓게 생산된 혁명시는 오늘날까지도 후일담이나 회고담, 기념이나 추도, 저항의 문맥에서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다. 그러나 4월혁명시는 항쟁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애도와 추념, 선언적 수사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갈래의 특성상 소설이나 수기문학에 견주어 증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문학과 역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4월혁명의 본질을 가장 오롯이 드러내는 시적 유형은 증언시다. 물론 혁명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증언시는 드물다. 기동성 있는 신문매체를 통해 가장 먼저

14) 안철, 『동아일보』 1960. 4. 23., ‘서러운 골목’, 강명희, 『조선일보』 1960. 4. 23., ‘오빠와 언니가 왜 피를 흘렸는지…’.

15) 이순욱,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429~436쪽.

발표된 김춘수의 아래 시는 증언의 실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각별하게 읽힌다.

南城洞派出所에서 市廳으로 가는 大路上에
또는
南城洞派出所에서 北馬山派出所로 가는 大路上에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연했던 것을…
一九六〇年 三月 十五일
너는 보았는가… 夜陰을 뚫고
나의 고막도 뚫고 간
그 많은 銃彈의 行方을…
南城洞派出所에서 市廳으로 가는 大路上에서
또는
南城洞派出所에서 北馬山派出所로 가는 大路上에서
이었다 끊어졌다 밀물치던
그 아우성의 怒濤를…
너는 보았는가… 그들의 어떤 얼굴 모습을…
뿌린 핏방울은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연했던 것을…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馬山事件에
犧性된 少年들의 靈前에」

인용시는 부제 ‘마산사건에 희생된 소년들의 영전에’를 보아 추념시로도 볼 수 있지만, 독자들에게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로 가는 대로상(大路上)에서”와 말줄임표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화자의 분노와 충격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화자의 실제 경험을 살려낸 이

시는 “너는 보았는가…”라는 시구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마산 의거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확보하고자 했다. 당시 민주신보사 기자로 마산 현지에서 의거를 생생히 경험한 정영태의 『피로 뿌린 시 내일은 꽃피리』(『민주신보』, 1960. 4. 30.)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보았다/ 최루탄이 쳐박힌 김주열 군의 얼굴을/ 그 위에 덮인 피뭍은 태극기를”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현장에서 증언하는 방식을 통해 4월혁명의 희생과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국면을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것이다.

四二九三年
二月二十八日
大邱中央通에서
慶北高等學校
검은隊列은
學園의 自由와
民主主義 守護를 부르짖었을때
나는 자꾸 感傷에 젖어 눈물이 목구멍을 메웠다.
(…중략…)

釜山에서는 東萊高校 慶南工高校
西面에서 凡一洞에서
光州에서 大田에서 仁川에서 淸州에서
晋州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린것이 大學敎授들이

아! 얼마나 魅力的인 學生이라는 이름이야
아! 얼마나 榮光인 學生의 긍지이었더냐
그들은 불길처럼 터졌다

氷花처럼 싸늘하게도 외쳤다.

—박양균, 「無名(無名)의 힘은 眞實(眞實)하였다—四·一九를 前後(前後)한
時局(時局)에 말한다」 가운데서

4월 26일 오전 11시 하야성명을 들고 쓴 것으로 부기되어 있는 인용시는 크게 두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 시는 대구의 2·28민주항쟁에서 3월 15일의 마산 상황, 4월 11일 김주열의 죽음,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4월 19일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민이 참여한 혁명의 전개과정을 형상화하였다. 그런 다음, 혁명의 의의와 “무명(無名)의 힘”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화자의 결의를 되새겨 놓았다. 그런데도 한편의 시에 항쟁의 긴 과정을 담으려 했던 까닭에 증언의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4월혁명을 노래한 시는 대부분 혁명의 영속성과 낙관적 전망, 희생자의 헛되지 않은 죽음의 의미를 지나치게 전경화함으로써 애초부터 증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혁명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억투쟁으로서 증언의 존재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4월혁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문학은 역사의 잔재가 아니다. 문학을 오로지 역사의 잔재로만 본다면 더욱 폭넓고 본질적인 역사적 차원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차원은 그 출처가 단순히 역사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매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단순한 역사기록의 진술을 넘어선다. 심미적 구성물로서의 예술작품은 역사현실에 반응하며 그 정신세계의 구조를 포함하여 현실을 판별하고 더 나아가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거부하며 무엇보다 현실을 보완할 수도 있다.¹⁶⁾ 그만큼 문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는 셈이

16)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 옮김,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 101~102쪽.

다. 그런 측면에서 4월혁명 이전 한국 작가들이 신비적인 비현실관을 지니고 있었고, 혁명의 과정에서도 그들의 정신에는 “군중의 행렬”인 현실이 정당한 위치를 잡지 못했던 까닭에 한국작가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속죄”뿐이라는 천상병의 지적¹⁷⁾은 설득력이 있다.

둘째, 4월혁명으로 희생된 영령에 대한 애도와 추념은 후대들이 받들어야 할 마땅한 몫이다. 4월혁명시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시는 합동위령제나 영전에 바친 진혼가(鎭魂歌)나 조시(弔詩), 애가(哀歌), 송가(頌歌)다. 이는 혁명의 영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특히 추도의 숭고한 대상으로 널리 현양되는 인물이 김주열이다.

눈에 포탄을 박고 머리엔 맺자옥에 찢겨
남루히 버림 받은 조국의 어린 녀이
그 모습 슬픈 호소인양 겨레 앞에 보였도다

행악이 사직을 흔들어도 말없이 견뎌온 백성
가슴 가슴 터지는 분노 천둥하는 우뢰인데
돌아갈 하늘도 없는가 피도 푸른 목숨이여!

너는 차라리 義의 제단에 애면 속죄 羊
자옥 자옥 피 맺힌 歷史의 旗幟 위에
그 이름 뜨거운 숨결일네 퍼득이는 蒼空에!

—이영도, 『哀歌—故金朱烈君 靈前에』 전문

인용시는 김주열의 영전에 바친 ‘애가’ 가운데 하나다. 이 시는 추도 시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의 과잉과 직접적인 공분의 표출을 절제하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김주열은 마산의거에서 희생된 한

17) 천상병, 『4·19 이전의 문학적 속죄—왜 현실적이 되지 못했는가?』, 『자유문학』 1960년 9월호.

개인이 아니라 4월혁명 전과정을 통해 희생된 영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포탄”이 눈에 박히고 고문으로 “머리엔 땀자욱이 찢긴” 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그는 “역사”와 “의(義)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양”이다. 그런 까닭에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의 역사적 의의를 거듭 되새기며 계승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民主의 횃불 높이 들어서
이 나라위해 피 흘린 그대들
祖國의 꽃송이 고히 잠드소서
아아! 靑史에 길이 빛날
四月十九日!

—김용호, 『鎮魂歌』 가운데서

『진혼가』는 4월혁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전형적인 추도시다. 1연에서는 “조국의 꽃송이”, 2연에서는 “민족의 영령”, 3연에서는 “자유 의 기수”라 올려세움으로써 역사에 길이 빛날 4월 19일을 기념하고자 했다. 추도시는 애도의 형식 또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당시 여론이나 공론에서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논리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통해서서는 당시의 사회사나 정신사에 대한 인식을 엿보기 힘들다.

셋째, 정치시는 억눌린 자들의 투쟁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지배 권력에 대항하며 투쟁을 선도하는 민주주의적 동원으로서 정치문학이다. 4월혁명시에는 민주적인 투쟁을 위해 집단의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는 정치시가 지배적이다. 1950년대 후반 ‘만송죽’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배자들에게 공헌하는 문학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가는 시민과 학생들의 단결과 분명한 이해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파적이다.

馬山은
고요한 合浦灣 나의 故鄉 馬山은

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
抒情을 달래는 傳說의 湖畔은 아니다.

봄비에 눈물이 말없이 어둠속에 괴면
눈동에 彈丸이 박힌 少年의 屍體가
대낮에 漂流하는 埠頭—

學生과 學生과
市民이

<戰友의 屍體를 넘고 넘어—>
民主主義와 愛國歌와

목이 말라 온통 설레는 埠頭인 것이다.
과도는
良心들은 歷史에 돌아가 冥想하고
붓은 馬山을 後世에 고발하라
밤을 새며 외치고

政治는 凝視하라. 世界는
이곳 이 少年의 表情을 읽어라
異邦人이 아닌 少年의 못다한 念願들을 생각해보라고
無數히 부딪쳐 밤을 새는
피절은 潮流의 아우성이 있다.

馬山은
고요한 合浦灣 나의 故鄉 馬山은

世界로 通하는 埠頭!

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
抒情을 달래는 傳說의 湖畔은 아니다.

陣痛이
아우성이 少年의 피가
憤怒의 소용돌이 속에
또 하나의
오—움직이는 世界인 것이다
氣象圖인 것이다.

—김태홍, 『馬山은!』 전문

김태홍에게 고향 마산은 “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 서정을 달래는 전설의 호반”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목이 말라 온통 설레는 부두”다. 이러한 인식은 마산의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에서 비롯된다. 마산의거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주열의 죽음을 통해 마산을 4월혁명의 진원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하라”, “표정을 읽어라”, “생각해 보라”는 명령적인 어조는 독자들에게 마산의 장소성, 그러니까 “소년의 피”가 “움직이는 세계”이자 “기상도”임을 강하게 일깨워 준다. 이제 마산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된다. 4월혁명시의 전통에서 이만큼 마산의 거의 의의를 간명한 비유 속에 효과적으로 담아낸 시는 드물다.

여기에서 “붓은 마산을 후세에 고발하라”는 문학의 정치참여에 대한 김태홍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문학인의 정치 참여를 논하면서 “생명은 정치 이전에 있으며, 정치를 위한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정치”¹⁸⁾라 강조했다. 그는 문학의 정치 참여가 선거판에서 찬조 연설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업을 통한 이외의 길이 없다”¹⁹⁾고 본다. 그런 까닭에 “노동에 탄환이 박힌 소년의 시체가/ 대낮에 표류하는” 마산의거에 대해 문학으로 응전할 것을 요구한다.

① 내일을 믿자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
우리 다함께 歷史의 이름으로
저 원수!
원수를 告發하자.

—정천, 『序詩—長詩 ‘총알은 눈이 멀었다’의 序詩에서』 가운데서

② 命숨은 내렸다/ 詩人이여/ 일제히 /武器를 들자// (…중략…) 붓은/
우리의 武器다// 詩句 그것은/ 한字 한字가 총알이다.// 글줄 그것
은/ 砲列……// 砲列과 砲列이 나아가는/ 오! 장엄한 示威/ 그것은
우리의 詩다 우리의 힘이다.

—정천, 『詩의 宣言—四月革命記念詩集 끝에 부치다』 가운데서

“총”이 “뱀”인 나라에서 시인의 노래는 “시탄(詩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용시에서 보듯이 4월혁명시는 “원수”, “사람 백정(白丁)”이라는 타도의 대상과 적대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치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요구’로서 존재한다. 정치시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 백정이/ 사냥개를 몰아/ 백성을 덤이로 죽여 쌓아도/ 빨갱이란 꼬리표 한 장이면/ 오히려 죄가 공으로 바뀌는 나라”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정치적인 실천이다.

18) 김태홍, 『국제신보』, 1960. 3. 24. 1면, ‘예술인의 정치참가’.

19) 김태홍, 『국제신보』, 1960. 3. 8. 1면, ‘문학인의 선거참가’.

현대문학사에서 1960년만큼 문학의 공리성과 정치성이 강조된 시기도 드물다. 정치시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독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용된다. “무기”로서의 시는 문학의 정치성이 강조되던 1920년대 계급주의 시문학이 지향했던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자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선전 선동을 중요시하는 까닭에 정치시는 종종 비판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⁰⁾

IV. 4월혁명과 청소년문학의 역동

한국 현대사에서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 시기는 1960년 4월혁명이었다. 혁명의 전조는 학원의 정치도구화에 맞서 교문을 박차고 나선 고등학생들의 가두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 28일 일요일,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 유세에 가지 못하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 학교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대구 지역에서 첫 봉화가 올랐다.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학생시위는 마산,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들은 대자보문화의 아날로 그적 감성정치와는 달리 학교 담장과 철조망을 거침없이 넘나들며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이제껏 4월혁명은 대학생과 시민, 서울 중심 논리에 포획되어 특정 세력과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부산지역만 보더라도 항쟁의 중심세력은 단연 고등학생들이었다. 선거를 앞둔 3월 12일 학교 당국과 경찰의 제지에도 “학원의 자유를 달라”, “뿌리 뽑자 정치악”, “살인선거 물리치자”, “동포여! 잠을 깨라”는 구호를 외치며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보 데모를 했다. 항쟁의 열

20) 이순욱, 앞의 책, 2014, 450~461쪽.

기가 드높았던 4월 19일 경찰의 몽둥이세례를 돌파하면서 데레사여고 학생들이 울면서 외쳤다. “협잡선거는 무효다”, “평화적 데모는 우리의 권리다”라고 이렇듯 무장경관의 방어선을 뚫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부산고, 동래고, 경남공고, 데레사여고, 동성고, 해화여고 등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시위는 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오롯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근대 이후 부산지역에서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정치의식을 지닌 계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의 지역적 재편에 힘입은바 크다. 무엇보다도 중고등 교육기관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신문 방송매체의 영향 증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여기에서 한국전쟁기 보수동 책방거리를 매개로 이루어진 문화적 파급 효과는 지식에 목말라하던 청소년들의 의식을 밀도 있게 재구성하는 통로로 작용하였다. 보수동이야말로 학교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점이었던 셈이다. 또한 이 시기 근대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문맹퇴치운동의 전개 들도 고등 교육인구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학생 계층의 정치 문화의식을 예각화하는 동시에 지식인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운동의 힘들을 일정하게 분산시키는 역할도 담당했다. 전후 학생 문학사회가 폭넓게 형성되고, 암장(岩漿)으로 대표되는 고등학생 이념 씨름이 조직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960년 3·15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각종 부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때,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전개하며 공명선거를 촉구한 주체는 고등학생들이었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직후 고등학생들이 거리 곳곳에 뿌렸던 전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청소년은 이 시기 종언을 고한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정치 변화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났던 것이다.

4월혁명문학의 기간 매체는 신문이었다. 특히 권력의 감시와 협박에 굴복했던 서울과는 달리 정론직필을 지향한 부산지역의 신문매체는 혁명문학의 생산과 향유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청소년 혁명문학을 가장 광범위하게 갈무리한 매체는 교지였다. 물론 혁명 직후 곧바로 발행된 기념시집이나 항쟁사들의 기획출판물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혁명의 열기가 약화된 하반기 들어 각급 학교에서 발간된 교지는 중고등 학생들이 혁명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가장 지배적인 매체였다. 혁명의 진원지였던 부산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항쟁의 최전선에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지야말로 4월혁명문학의 산실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지향을 오롯이 담고 있는 교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제껏 4월혁명이 지식인과 대학생, 서울중심주의로 전유되었기 때문이다.

4월혁명 청소년문학은 시, 소설, 수필, 수기, 방송시나리오, 일기 등 갈래나 양적인 측면에서 성인문학의 창작성과를 훨씬 뛰어넘는다. 김주열 표상에 전적으로 매몰되었던 혁명문학의 주류적 경향에서 비켜 서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수기나 증언은 지역의 고유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항쟁사를 복원할 수 있는 실증자료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 점에서 4월혁명 청소년문학은 이 시기 지배적인 추도문학적 성격에서 나아가 증언문학의 성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항쟁에 함께 참여했던 동지 의식의 발로였을까. 아니면 그들 세대가 주도한 혁명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구심력이었을까. 불멸의 비문(碑文)으로 남은 4월 19일 피의 화요일, 민주제단에 바친 동료 학생에 대한 추념의 글들이 지배적인 편이다. 특히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총탄에 돌아간 경남공고 3년생 강수영은 김주열에 비견될 만한 혁명의 꽃이었다. 전장을 누빈 전우의 죽음 앞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

한 그들 세대의 연대는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 정서적으로 충분한 결속력을 지니기에 충분했다. 그를 통해 혁명의 정당성과 혁명 과업의 방향, 청소년 세대가 혁명 이후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① 세인(世人)은/ 그대의 이름을 일컬어/ 잠든 사자라고 한다./ 기
 맏히게 억센 힘을 가졌던/ 잠든 사자라고들 한다.// 박탈당한 주권을
 찾기 위하여/ 불꽃처럼 난무하던 포화 속을/ 천연한 행렬을 이어며/
 겨레의 가슴을 부풀게 한 그대.// 피를 치 쏟으며 쓰러질 때/ 그대 남긴
 말이 무엇이던가/ 한마디, 단 한마디가/ 그것은 그대만이 아는/ 피 맺
 힌 유언(遺言)./ 아직도/ 그날의 충성은 몇지도 않았고/ 세상은 멧든
 그대론데—/ 그대/ 다시 옛된 얼굴로 나타나 보라.// 꽃다운 청춘을/
 미련도 없이 조국을 위해 불사르며/ 끝내 처절한 임종으로/ 세속에의
 고별을 내린/ 그대 이름은 오롯이 잠든 사자.// 아—/ 강산에 평화가
 깃드는 날/ 내 그대 명복을 빌며/ 그대 영전에 하이얀 꽃송이 날리리./
 날리리.

—이종환(경남공고 2년), 「잠든 사자여!—강수영 형의
 영전에 바친다」 전문21)

② 지금 이 瞬間에도/ 등을 찾고 肝을 찾는 徒輩야/ 또 무슨 辯明을
 甘言利說을/ 術策을/ 金權의 權力의 榮達의 執念을/ 그 阿附의 근성을
 / 새로운 民主歷史 터전 위에서/ 그렇게도/ 버리지 못하고 鈕우치지
 못할손가?/ 學生들의 崇高한 皮 앞에/ 眞實로 깨끗이 懺悔하라./ 새로
 운 民主共和國 선혈로 이룩하노니/ 깨끗한 이 礎石위에/ 티끌하나 있
 을손가?/ 새롭고 아름다운 民主建設 萬邦에 빛나려나/ 學生들의 崇
 高한 皮 앞에/ 眞實로 깨끗이 懺悔하라—

—김윤희(테레사여고 2년), 「崇高한 皮 앞에 懺悔하라」
 가운데서22)

21) 『지축』 제6호, 경남공고 학생자치회 학예부, 1961.1.31, 30~31쪽.

①에서 후배 이종환은 조국을 위해 순사한 그를 “잠든 사자”라 표상한다. 그러나 여전히 “명든” 세상에서 “박탈당한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은 명복을 받고 현화할 수 없다. “강산에 평화가 깃드는 날”로 추념의 시간을 유예시킨다. “옛된 얼굴” 그대로 강수영을 ‘다시’ 호출하는 것은 청소년 세대가 주도한 민권 투쟁의 순수한 대의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수영은 영면한 존재가 아니라 다시 푸르게 깨어나야 할 ‘잠든’ 사자인 셈이다. 피로 절규한 그의 “유언”은 살아남은 그들 세대를 일깨우며 다시금 죽은 자와의 연대를 상상하고, 부정적인 현실과 대결하기 위해 그를 재생해야 할 존재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강수영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영웅으로 기억되는 셈이다.

②에서는 민주제단에 바친 “학생들의 숭고한 피”를 더럽히는 세력에 대한 참회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혁명 당시 청소년들의 선언에서 엿볼 수 있는 이념적 기조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었다. 비록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내세웠던 정치적 이상은 이승만 정권을 추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이상이 무력화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분노는 숭고한 피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진실로 깨끗이 참회하라”는 명백한 요구. 이것은 혁명담론의 실천이 좌절된 정치 지형에서 청소년들의 또 다른 ‘선언’이었다.

강수영의 스승인 홍준오 시인 또한 학생들이 자유를 외칠 때 “불안에 싸여/ 강권에 놀려” “비굴한 교사들” “유약한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자책하면서, “비굴과 아부만을 일삼던 무리들도/ 탐욕과 권세만을 꾀하던 무리들도/ 스스로를 자랑삼아/ 들뜨는”(『그대 명복(冥福)만

을 빌겠노라—문생(門生) 고강수영군의 방훈(芳魂)에 붙임) 현실을 발견한다. 혁명 전후 자신을 포함하여 4월혁명의 성과를 전유하려는 기성세대들의 행태가 학생들의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일이라 비판한다. 그에게 피의 4월은 제자를 제물로 바친 절름발이 혁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만 명복‘만’을 빌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시편과는 달리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 가능성이 차단된 투쟁기는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혁명문학의 중심자리에 드는 갈래다. 그것은 글쓴이 스스로가 겪은 삶의 기록이다. 물론 소속 학교의 투쟁 상황을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 계층이 겨냥했던 혁명의 정치적 목표와 전개과정, 지도부의 성격, 투쟁방식, 경찰의 대응 양상, 시민사회의 동향 등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쌓인 분노는 혈화산(血火山)처럼 폭발했다』(해동고 유학조), 『불의에 항거하여 노도와 같이』(테레사여고 정추봉), 『우리는 이렇게 항쟁했다』(경남공고 이을랑), 『저주 받을 총검을 헤치고』(부산고 학생회), 『분노에 찬 젊은 사자들』(동래고 학생회)는 당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제와 항쟁의 전개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기다.

누군가 “운동장까지 돌진하자!”고 외치자 이 제이 부대는 성년 사자처럼 서면 쪽으로 향하여 목이 터져라 하늘 높이 구호를 외치면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남문구에 다달았을 때 우리들의 행동에 제지가 없는 한 투석을 중지하도록 결의했다. 이미 우리들 뒤에는 수백 대의 자동차가 따르고 차내에 앉은 승객들의 따뜻한 구원의 박수 소리가 새어 나왔다. 한국의 어머님들의 눈에는 어느덧 사랑 뿜안개가 끼었다. “한국의 어머님이시여! 눈물을 거두소서. 우리들은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승객을 타 이르며 우리들의 뼈라를 넣어 주었다. “협잡 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자!”, “내 동족이여! 동족을 살해하지 말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달리고 달렸다. 모두 분노 속에 스크램을 짜고 행진을 계속했다. 분노에 터져 나오는 노래 소리!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 동포여 일어나라 나라를 위해…….” 가슴 속에 쌓이고 쌓인 원한의 절정!

—신성태(동래고 3년), 『민족의 태양 ‘동래고’ 4·18을 회상하며』
가운데서²³⁾

4월 18일 동래고의 항쟁은 그때까지의 학생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6시간에 걸쳐 동래고 교정에서 범일동을 오간 “최고 장거리 데모요 장시간 데모”였다. 철책 교문을 박차고 다다른 온천장 입구에서 경찰과의 치열한 격투, 거제리에서의 투석전, 서면, 범남골 로터리, 범일동 시장을 거쳐 삼일극장 앞에서 무장경찰과의 대치와 공방, 선생님의 설득으로 귀교하게 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기에서 드러나듯, 3월 12일 해동고의 가두시위를 필두로 3월 24일 부산고, 4월 18일 동래고, 4월 19일 테레사여고와 경남공고 학생들이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 속에서 적극적으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은 정치의식이 결여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집단이라는 세평이 나올 만큼 혁명성을 담지한 계층은 아니었다.²⁴⁾ 오

23) 『군봉(群蜂)』 제10호, 동래고등학교 문예반, 1961. 2. 20, 49쪽.

24) 이러한 점은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모금운동에 나선 부산대 약대 3학년이던 박경자 학생의 수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에도 해본 적 없는 이 모금운동을 위해 막상 힘을 들고 거리에 나섰을 때는 부끄러웠고 다소 창피(?)도 했던 혼잡한 감정은 실로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어린 중등학교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앞장서서 모금을 하는가 하면 체혈까지 함으로써 부상자들을 돕겠다는 걸 목격하고 나도 모르게 확 하니 얼굴이 달아오름을 어쩔 수 없었다. (…) 이번에는 살면서 다방 문도 밀어보았다. 한가한 남녀손님들의 영광스런(?) 주시를 받는 속에서 너무나 놀라움고 분한 말을 들었던 것이다. “부산대학교 학생이 무슨 낮짜으로 모금하러 다니는 거냐? 미워서 돈 못 주겠어!” 물론 이런 뜻을 내포한 별벌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자신도 다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같이 다방의 손님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줄

히려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의 논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한 당대의 사회적 인식이 새로운 정치 주체의 탄생을 예고했던 4월혁명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대학생들의 항쟁은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시위에 견주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다. 이처럼 청소년은 3·15부정선거가 획책된 직전부터 4월 26일 그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기까지 현실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정치의 주역으로 떠오른 세대였다.

4월혁명문학은 항쟁의 끝자락과 이후 짧은 시기에 가파르게 생산된 대유행(boom)문학이자 주도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혁명을 선지적으로 예고한 예언자적 목소리나 혁명 당시의 기억과 경험을 재구성한 증언문학이 보기 드문 것은 당대 문학사회가 지닌 한계라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혁명의 정치적 의제가 퇴색하면서 심화된 문학인들의 침묵과 망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나마 항쟁의 주도세력이었던 청소년들이 교지에 발표한 다양한 갈래의 문학작품을 통해 민권투쟁의 실천 동력과 그들 세대의 정치적 지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²⁵⁾

V. 마무리

이제껏 4월혁명의 원인과 역사적 전개과정, 지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지역적 경험도 폭넓게 갈무리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쟁의 촉발 장소로서 대구, 이를 추동했던 마산에 견준다면, 부산지역 4월혁명의 갈무리와 후속 작업은 여

은 뜻밖이었었다.” 『부산대학교학보』 1960. 5. 20. 5면, ‘피의 값에 보답하라’.
25) 이순욱, 앞의 책, 2014, 473~485쪽.

전히 부족한 편이다. 대구와 마산지역이 4월혁명의 지역 개별성과 독자성을 강조(기념사업회의 조직과 활동, 통사나 자료집 발간)하는 사이 부산의 관심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4월혁명의 전체 전개과정에서 지역의 경험과 개별성 고유성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강조하려는 태도는 서울 중심으로 혁명을 전유하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혁명사나 항쟁기, 사진집 등을 비롯한 출판물의 서울 발간과 유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항쟁의 종결과 최후, 이승만의 하야라는 결정적인 최후의 국면이 강조됨으로써 지역의 투쟁과 문화적 응전이 과소평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지역 4월혁명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가치를 현양해야 할 학계나 유관기관의 발 빠른 대응이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은 4월 민주문학(혁명문학, 항쟁문학) 생산과 유통, 소비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 여기에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민주신보』, 『자유민보』라는 신문매체의 신속한 대응, 계엄사령부의 보도통제를 넘어서려는 기자들의 사명감, 지역 집중성에 따른 항쟁 열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지역의 항쟁이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3·15부정선거 이후가 파르게 전개되었던 지역의 항쟁 경험을 마치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말았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지역 강수영 열사의 희생과는 달리, 김주열의 주검이 마산항 앞바다에 떠오른 극적인 측면은 마산을 혁명의 성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혁명문학에서 김주열의 상징과 표상이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혁명문학의 소재 빈곤, 애도와 추념 서사의 과잉을 초래했다.

4월혁명 6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시, 소설, 희곡, 수기와 증언, 어린이 문학, 방송문학, 공론과 비평 등을 모두 갈무리한 『4월혁명문학전집』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초라하다. 이제는 아직껏 실체가 알

러지지 않은 문학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의 신문 잡지 매체, 학보와 교지 등을 통해 4월혁명문학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갈무리하고 의미화해야 한다. 4월혁명이 보여준 “무질서의 위대한 형식이 역사성 속의 미아처럼 다만 한순간의 고립”²⁶⁾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문학적 응전을 체계적으로 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⁷⁾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용호 엮음, 『항쟁의 광장』, 신흥출판사, 1960.
 김중윤·송재주 엮음, 『불멸의 기수』, 성문각, 1960.
 신경림 엮음, 『4월혁명기념시선집』, 학민사, 1983.
 신동엽 엮음, 『학생혁명시집』, 교육평론사, 1960.
 연합신문사 엮음, 『추억의 혁명』, 연합신문사, 1961.
 이상로 엮음, 『피어린 사월의 증언』, 연학사, 1960.

26) 박태순, 「무너진 극장」, 『월간중앙』 5호, 1968 ; 『낮선 거리』, 나남, 1989.

27) 발표자는 4월혁명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민주주의사회연구소의 후원으로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매체에 발표된 시, 소설, 희곡, 방송시나리오, 어린이문학, 청소년문학, 수기와 증언, 추도사, 항쟁기·투쟁기, 일기, 비평, 공론, 좌담회, 대담, 설문, 현장보도 등의 문헌사료를 한데 모은 4월혁명사료총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 책은 부산 지역의 신문매체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보』, 『민주신보』, 『자유민보』, 그리고 『부산대학교학보』·『동아대학보』·『수대신문』 등의 대학신문, 『靑潮』(부산고)·『靑泉』(동아고)·『지축』(경남공고)·『群蜂』(동래고)·『소화』(테레사여고)·『白陽』(부산상고)·『옥샘』(동래여고)·『海東』(해동고)·『慶南女高』(경남여고)·『慶高學報』(경남고)·『金嶺』(동성고)·『중』(부산사범학교)·『배정』(배정고) 등의 교지, 『靑潮文學』·『靑鳩文學』(경남여고) 등의 문예지, 새롭게 발굴한 4월혁명 기념시집 『힘의 선언』, 4월혁명 참가자의 일기나 편지 등을 바탕으로 삼았다. 전체 5권으로 발간할 총서의 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 『붓은 우리의 무기다』(시, 사월혁명기념시집 『힘의 宣言』, 소설·희곡·방송시나리오, 어린이문학), 제2권 『조국아, 붓이 통곡한다』(비평, 공론), 제3권 『피 흘린 자국마다 꽃피라!』(일기와 편지, 수기와 증언, 추도사), 제4권 『비겁한 자, 네 이름은 방관자!』(현장보도, 평전), 제5권 『아직은 혁명이란 이름을 불이지 말라』(좌담회·대담, 설문)

정천 위음, 『힘의 선언』, 해동문화사, 1960.
 한국시인협회 위음, 『뿌린 피는 영원히』, 춘조사, 1960.
 『국제신보』, 『부산일보』, 『민주신보』, 『자유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매체와 『군봉』, 『청조』, 『지축』, 『소화』 등의 교지

2. 저서

김대상, 『부산 경남 언론사 연구』, 대왕문화사, 1981.
 김동춘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1998.
 박대현, 『혁명과 죽음』, 소명출판, 2015.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박태일, 『마산 근대문학의 탄생』, 경진, 2014.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이광우, 『회고와 추억』, 자가본, 2003.
 이순욱, 『근대시의 진장』, 소명출판, 2014.
 최원식·임규찬 위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편집부 위음, 『4·19혁명론 II(자료편)』, 일월서각, 1983.
 편집실 위음, 『4·19의 민중사』, 학민사, 1984.
 한정호, 『지역문학의 씨줄과 날줄』, 경진출판, 2015.
 J.키인, 주동황 외 옮김, 『언론과 민주주의』, 나남, 1995.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 옮김,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

3. 논문

강우식, 「4·19혁명 추도시 분석」, 『반교어문연구』 11, 2000.
 구로룡, 「3·15시와 기억 투쟁」, 『서정과 현실』 4, 2005.
 김경복, 「3·15의거와 민족저항시」, 『서정과 현실』 4, 2005.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SAI)』 9, 2010.
 김선미,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현실인식과 실천—시위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5, 2005.
 _____, 「부산지역 4·19민주항쟁의 주도세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010.
 박태순,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된 김주열의 시신」, 『역사비평』 봄호, 1992.

- 신형기, 「4.19와 이야기의 동력학—4.19 수기를 통해 본 이야기의 작용과 효과」, 『상허학보』 35, 2012.
- 염무웅·장성규, 「4·19, 유신, 그리고 문학과 정치의 문제」, 『실천문학』 11월, 2012.
- 유영국,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4월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을 중심으로」, 『부산학 총서』 2, 2004.
- 이승하, 「4·19혁명 기념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4, 2008.
- 이완범, 「4·19 전조(前兆)로서의 1960년 초봄 지역 시민운동—‘4·19’의 ‘대학생—서울’ 중심사관을 넘어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2013.
-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겨울호, 2003.
- 정진석, 「4·19혁명과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115, 2010.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6. 23.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April Revolution and Democratic Literature in Busan

Lee, Soon-Wook

Busan had been one of the most critical domains for producing, distributing and consuming pieces of the April Revolution Literature based on the spirits of democracy and resistance. Most the poems, public opinions, juvenile works, records of protest events, and criticisms which had been put on the public mass media of Busan area such as the Busan Ilbo, the International Newspaper, and the Democratic Newspaper, were full enthusiasm for resistance movements against the Li SeungMan Government. The reason why Busan literature in the period of April Revolution took the lead of journalisms and literary criticisms against the state power seems due to the rich heritage of politics of literature which had been accumulated through daily experiencing ideology struggles in the province since the Korean War.

Keyword: Busan, April Revolution, spirits of democracy and resistance, Politics of literature

